

2019. 05. 08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9년 5월 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 · SEOUL · 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

|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디자인정책과장 | 박숙희 | 2133-2700 |
| 디자인개발팀장 | 강효진 | 2133-2720 |
| 담당자     | 황상미 | 2133-2724 |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12매

## 서울시,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문제 '교실 식물 재배'로 푼다

- 동대문구 전일중학교에 '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' 적용 '마음풀' 첫 조성, 7일 개소식
- 교실 내 작은숲 '초록정원', 식물 재배 '씨앗정원', 식물 관련 지식 습득 '지혜정원' 등
- 시각·청각 자극 위주의 휴대폰 등 디지털 매체→오감발달, 정서회복 균형적인 뇌발달 유도
- 시범운영 기간 학생·학부모 동아리, 운영협의체 구성...연내 2개 학교에 추가 조성

서울시가 스마트폰,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잠시 눈을 돌려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 처음으로 조성했다. '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'으로 동대문구 전일중학교 빈 교실에 조성한 '마음풀' 교실이다. 학업의 공간으로만 획일화 됐던 교실에 창밖으로만 보던 '식물'을 들여와 사계절 내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.

○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, 풀이 자라나는 공간, 마음을 충전(full)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'마음풀'로 이름 붙였다.

교실엔 바나나나무, 야자 등 다양한 식물로 작은 숲이 만들어졌다. 교실

한켠엔 흙을 직접 만져보며 씨앗을 심고 수확도 해보고, 재배한 식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공간도 마련됐다. 교실 벽면 한쪽을 가득채운 큰 거울 앞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물로 지우며 스트레스도 지우는 마음정원도 생겼다.

- 서울시는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 있는 가난한 슬럼가의 학생들이 꽃과 채소를 매개로 교내에서 교감하면서 학교폭력은 줄어들고, 졸업률은 17%에서 100% 가까이 늘어난 미국 뉴욕시 브롱스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. (<https://greenbronxmachine.org/>)
  - 원예활동은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치유적 효과가 있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유도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.
-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가 과도하게 시각·청각적으로만 반복적으로 자극해 청소년들의 뇌 발달이 제한되고 감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, 마음풀 공간에서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냄새도 맡고 푸르른 숲도 바라보는 등 오감을 되살리고 잃었던 감성도 회복시켜 균형적인 뇌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.
  - ‘바이오 필리아 이론’에 따르면 디지털 매체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균형 있는 뇌 발달이 제한되고 감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. 이는 결국 과잉행동, 주의력 결핍, 사회성·정서 발달 저하 등의 문제로 발현되기도 한다.
  -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129만1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2018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’ 결과, 15.2%에 해당하는 19만6337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넷, 스마트폰

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‘과의존 위험군’으로 진단됐다.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항목이 모두 문제가 된 ‘중복위험군’ 청소년도 6만 4924명으로 집계됐다.

- 서울시는 7일(화) 14시 지난 연말에 조성한 ‘마음풀’ 교실에 대한 정식 개소식을 갖는다. 앞으로 ‘식물’을 매개로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.
  - 개소식엔 서울시, 전일중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마음풀 조성에 힘을 보탠 신한카드,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, 서울시립대학교,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한다.
  - 최근 을지로 서울청소년수련관에 문화공간을 조성한 신한카드는 ‘마음풀’에서 사용되는 교구재도 후원했다.
  
- 시는 작년 공간 조성 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식물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·운영했다.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멘토가 돼 마음풀에서 재배한 식물로 요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주1회씩 운영해 왔다.
  - 전일중학교 3학년 이○○ 학생은 “솔직히 평범하고 좀 별로인 공간이 만들어 질 줄 알았는데 정말 멋진 곳이 만들어져서 좀 놀랐어요. 학교에 없을 거 같은 공간이 만들어 진 거 같아요. 제가 심은 씨앗이 매일 어떻게 크고 있는지 궁금하고 물도 줘야 될 것 같아 등곳길이 설레요. 다 키우면 교실 밖 텃밭에도 옮겨 심을 거예요.”라고 말했다.
  -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립대학교 학생은 “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도,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

엇보다 중학생들과 만나는 과정이 가장 큰 의미와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.”라고 말했다.

- 앞으로 서울시민정원사회에서는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식물을 관리하고 교육도 할 예정이다.

□ 또 마음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협의체인 ‘마음풀 서포터즈’, 학생 동아리 ‘마음풀지기’, 학부모 동아리도 구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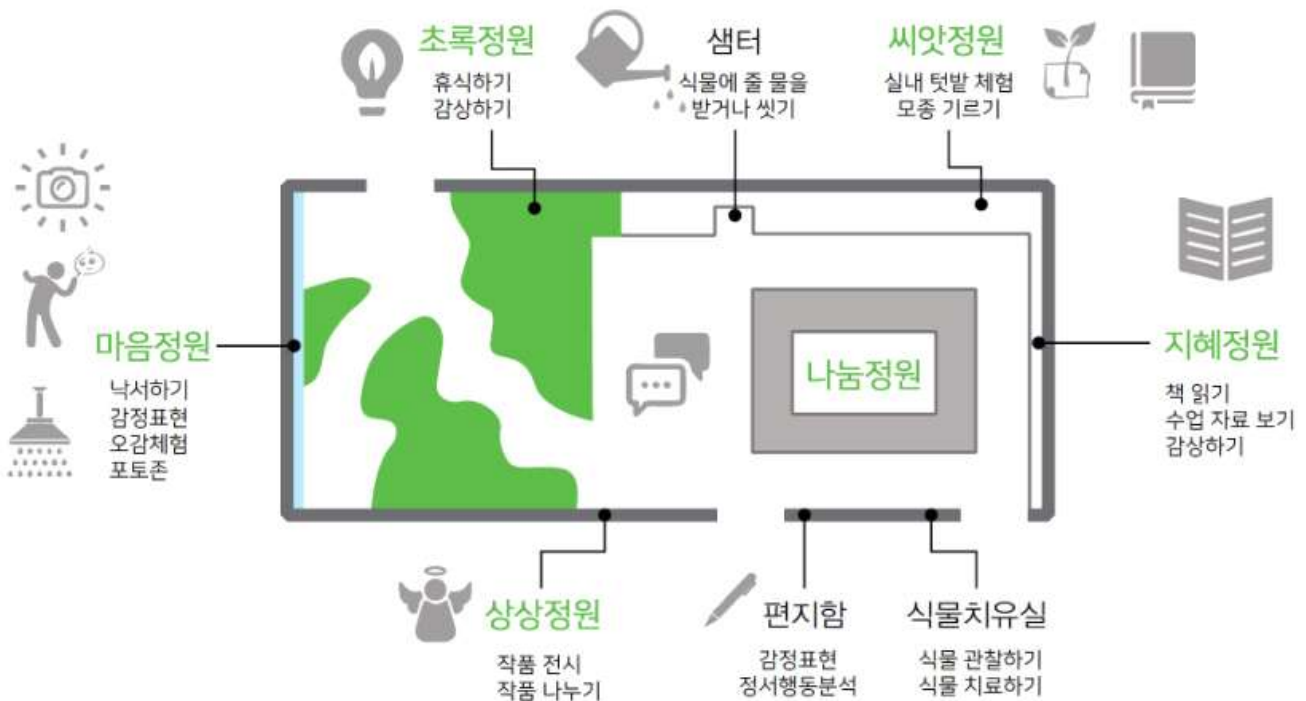
- ‘마음풀 서포터즈’는 마음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영협의체다. 서울시와 학생, 교사, 학부모 등 학교, 식물 관련 전문가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시민정원사회로 구성됐다.
- ‘마음풀지기’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마음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생 동아리다. 다른 학생들에게 공간을 안내하고 공간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.
- 학부모 동아리는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식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마음풀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

□ 특히 ‘마음풀’은 서울시가 식물을 활용해 ‘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.

- ‘사회문제해결디자인’은 행정예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이다. 시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 중 하나로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(구 학교폭력예방디자인) 사업을 '14년부터 시작해왔다.

○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엔 인지건강디자인,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, 생활안심디자인이 있다.

□ 마음풀은 ▲초록정원 ▲지혜정원 ▲씨앗정원 ▲마음정원 ▲나눔정원 ▲상상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.



□ ‘초록정원’은 마음풀 공간에 조성된 작은 정원이다. 바나나나무, 휘닉스야자, 떡갈고무나무, 팔손이, 보스톤 고사리 등 다양한 식물이 심겨 있다.



- ‘지혜정원’은 식물 관련 지식과 지혜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. 마음플 한쪽 벽면에 식물의 씨앗~수확 일생,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, 씨드팩 사용법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. 식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삽 등의 도구가 비치돼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벽면과 교실 전반에 설치된 선반엔 식물, 나무, 농사, 숲에 대한 도서도 있다.



- ‘씨앗정원’은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는 곳이다. 흙과 물, 씨앗을 만져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앗을 새싹으로 키우고 분갈이도 직접해볼 수 있어 마음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힌다.
- 씨앗정원 위 선반엔 사용한 흙의 종류를 알 수 있는 흙성질 연구실, 직접 키울 수 있는 허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허브카드, ‘마음풀’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를 수확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담긴 채소 레시피 등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.



- ‘마음정원’은 초록정원의 한 쪽 벽면에 설치된 큰 거울 앞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적고 물로 지워보며 자신의 스트레스도 함께 지워내는 곳이다.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. 거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·영상을 찍기도 하고, 때로는 ‘마음풀’ 공간 내 의자에 앉아 ‘초록정원’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.

- 전일중학교 2학년 이○○ 학생은 “여기 와서 애들이랑 수다도 떨 수 있고, 거울에 낙서도 하고, 또 식물에 물을 주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게 있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.”라고 마음정원 이용소감을 말했다.



- ‘나눔정원’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. 마음풀 중앙에 테이블이 놓여있다. 자유학기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 수업, 학생 자율 활동 시에 활용되고 있다.





- '상상정원'은 '마음풀'에서 만든 작품이나 화분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공간이다. 마음풀 밖 복도에 위치해 있다. 내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아존중감, 공동체 의식 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.



- 시는 올해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와 도봉구 정의여자고등학교에 ‘식물’을 활용한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.
  
-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“아이들이 감각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 공간인 교실에 식물을 들여와 사계절 내내 누릴 수 있도록 했다. 다양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시각 위주의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을 매개로 좀 더 고른 감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을 적용했다”며 “서울시도 지속적으로 마음풀 서포터즈의 일원으로써 이 공간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 1> 마음풀 사진(원본 별도송부)

□ 마음풀 조성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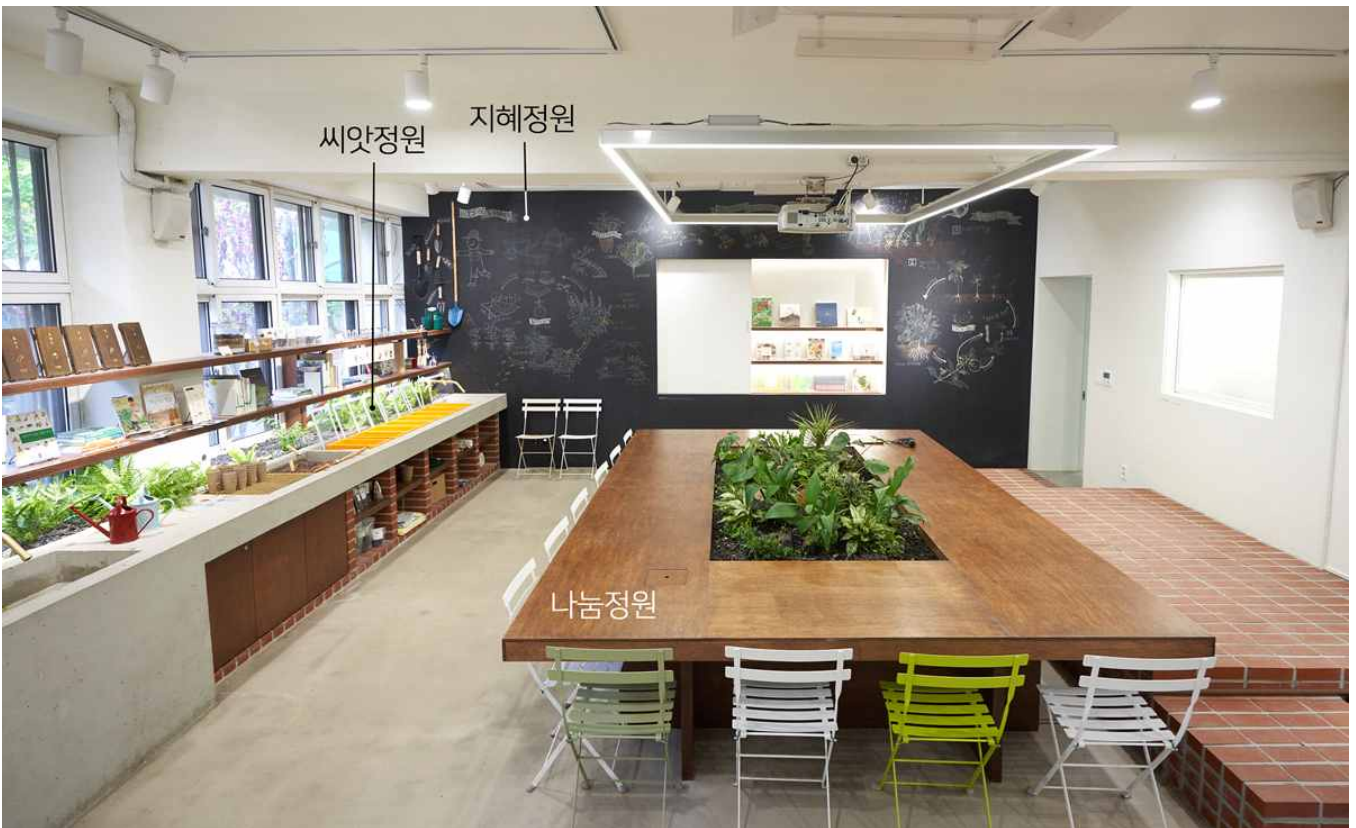


마음풀 공사중



마음풀 공사중

□ 마음풀 정원사진(추가)



지혜정원, 씨앗정원, 나눔정원

□ 마음풀 활동사진



〈붙임 2〉 마음풀 개소식 순서

| 시 간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3:50~14:00 (10') | 환 담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4:00~14:15 (15') | 내빈소개, 화영사 및 축사           | 〈진행〉      |
| 14:15~14:20 (05') | 사업 홍보영상 시청(3분7초)         | 공공디자인사업팀장 |
| 14:20~14:30 (10') | 체험1 : 함께 쓰는 씨드페이퍼        | 〈진행〉 용역사  |
| 14:30~14:40 (10') | 체험2 : 함께 만드는 까나페         |           |
| 14:40~14:55 (15') | 체험작품 전시장에 배치 및 '마음풀' 라운딩 | 〈진행〉      |
| 14:55~15:00 (5')  | 기념촬영 및 마무리               | 공공디자인사업팀장 |